

학교 시험 비위에 학생은 '시험 지옥'...공교육 불신 초래

광주·전남 고교 비위 반복...숨방망이 처벌·제 식구 감싸기 때문 출제 관행·자료 유출 경로 등 교육청이 점검하고 개선안 모색을

최근 광주 풍암고 기말고사 문제가 시중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전남 지역 고교에서 되풀이되는 시험 비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풍암고 뿐 아니라 목포 문태고, 대동고, 고려고 등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최근 몇 년 간 시험관리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치러진 풍암고 1학년 기말고사 수학 과목에서 22개 문항 중 12개 문항이 시중 참고서와 모의고사를 베껴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12개 문항 중 5문항은 모의고사, 나머지 7문항은 시중 참고서(일등급수학·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수학1 등)에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풍암고는 지난 9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 '광주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17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풍암고 외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시험관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달 초 목포 문태고에서는 지난 11일 2학년 39명이 치른 물리 과목 기말고사 24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시중 참고서 문제를 베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제고에서도 2학년 국어 교과 독서과목 문제 26개 문항 중 13개가 일선 학원 문제지와 일치해 중간고사가 다시 치러졌다.

2019년에는 고려고 교사들이 특정 상위권 학생

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했고 2018년 대동고에서는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69개교에서 지난해 총 239건의 지필평가 재시험이 치러졌다. 지난 2020년 210건, 2021년 197건, 2022년 164건, 2023년 197건, 2024년 239건 등 재시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의 관리 부실, 교사의 무책임, 시험관리 체계 부실 등을 개선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암고의 경우 교사 3명이 공동 출제하고 검토까지 했는데도 문제 인식을 전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은 공동 출제·검토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시험 범위 담당 교사가 주도적으로 출제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성취기준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하다 보니 공동 검토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험문제 관련 비위가 발생해도 교사 등에게 '숨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권이 법인 이사장에 있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대동고 '시험지 컨닝' 사건 이후 감사를 벌여 대동고 교장에게 중징계(정직 1개월), 교감과 행정실장에게는 경징계(감봉 2개월)를 요구했다. 당시 우성학원은 인사위원회 재구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7개월여 미룬 뒤, 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제멋대로 결정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

고려고는 2019년 문제유출 사건 당시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의결을 하지 않다가 2022년 4월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3년 넘게 징계 의결을 하지 않다가 2022년 7월 징계 시효를 넘겼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풍암고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 관리자 및 평가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문

항 체크리스트에 전자항목 강조 등 공동 출제·검토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개선안과는 거리가 있다.

기간제 교사 한 명에게 시험 출제와 책임이 모두 집중되는 등 불합리한 시험 출제 구조도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 문태고의 경우 기말고사의 출제와 채점, 검토까지 모두 기간제 교사 1명에게 맡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영·수 등 필수과목과 달리 수강하는 학생이 적은 선택과목의 경우, 여러 명의 교사가 동시에 담당하기 어려워 공동 출제·교차 검토 등의 '이상적 시스템'이 사실상 운영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사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되 교육 당국이 교사가 출제할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관리 출제관행, 자료 유출 경로 등 교육청이 근본부터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하철공사 한창 백운광장의 현재

16일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내년 6월까지 백운광장 지하차도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하루 총파업'

16일 제조업 공동화 저지·노조법 개정·노동탄압 중단 등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지역 제조업 공동화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노조원 1300여명을 모아 '금속노조 광주전남 7·16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적대 정책을 일소하고 망가진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강요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폐기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정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가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보복이나 제도적 제한 없이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보도 시급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 노정 교섭과 대화뿐 아니라 지역 산업공동화 및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확대, 금호타이어 정상화, 위아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니어 의사들 제발 전남으로 와주세요

신안군보건소 1차 모집 지원자 0명...31일까지 재공모

전남지역 보건소가 '시니어 의사 구하기'〈광주일보 7월 3일 6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차 모집을 마감한 신안군보건소에도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8일까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에 사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안군보건소는 지난 15일까지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신안군보건소는 기간을 늘려 오는 31일까지 재공고를 냈다.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달 1일이다.

앞서, 영암군보건소도 지난 8일 지원자를 받지

못한 채 1차 접수를 마감, 오는 28일까지 2차 모집공고를 낸 상태다.

해남군보건소는 오는 21일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계획상 채용되면 남은 기간인 5개월을 우선 일하는 거라 해남 지역 의사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자가 없다"면서 "다음달 8일까지 모집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 정말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보건소는 지난 4일 1명의 시니어 의사가 지원해 오는 22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 19일까지 많은 비...영광 호우예비특보

주말인 토요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까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과 남쪽 해상에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영광에는 17일 새벽을 기준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흑산도·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17일까지 광주·전남에 20~80mm, 전남북부서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비(시간당 30mm 안팎)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18일에는 광주·전남에 3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최고체감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17일 아침최저기온은 24~26도, 낮최고기온은 27~31도를 보이겠고, 18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온은 29~32도가 예상된다.

20일부터는 일본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